

## 문학평론의 사회적 지평

-정과리의 『1980년대 북극꽃들이 뿔고등을 불어라』를 읽고-

정수복(사회학자/작가)

“문학은 써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하며 억압 없는 사회를 꿈꾸게 해준다.” -김현

### 비평가는 무엇 하러 있는가?

비평가란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건축 등의 영역에서 창조된 예술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평가의 자리는 작품을 창조한 예술가와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애호가 사이에 있다. 그의 비평은 예술가와 예술애호가는 물론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상품화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비평가는 자기가 선택한 창작 영역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밖에 예술 영역 일반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

문학 비평가는 문학만이 아니라 예술 전반과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지식의 전 영역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문학 작품에 대해 구체적인 비평을 통해 모든 사람과 소통한다. 비평가는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작가 자신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작가가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했던 점도 찾아내어 이야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작품의 의미와 철학을 밝혀내며, 신문, 잡지,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예술과 문화 전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평가는 비평 활동을 통해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뛰어나다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특정 작품의 가치를 영속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한다. 거기에서 비평가의 힘이 나온다. 비평가는 비평을 통해 한 작가의 상업적 성공(돈)이나 문학적 출세(명예)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크고 매출액이 클수록 비평가들 사이의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다.<sup>1)</sup>

---

1) 미술 시장의 거래액수가 훨씬 큰데도 문학비평가에 비해 미술비평가의 힘이 약하다. 그것은 아마도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문학비평이 갖는 힘 때문일 것이다. 미술작품은 공공미술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소유자나 특정시기에 이루어지는 전시장에 입장한 사람만 볼 수 있지만 책이라는 형태로 접근 가능한 문학작품은 많은 사람이 쉽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평가는 좋은 ‘취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수많은 작품 가운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그것이 왜 좋은 작품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밝혀준다.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좋은 작품과 따라야 할 작품, 오래 기억되고 감상되어야 할 작품을 선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을 판단할 전문적 능력이 없는 감상자들에게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전문가는 예술 작품 속에 들어있는 볼 것, 들을 것, 느낄 것, 취해야 할 것을 섬세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다. 비평가는 작품과 일반 독자(관람자, 시청자, 감상자) 사이에 있는 단절을 이어주고 간격을 메워주는 사람이다.

비평가는 저자가 작품 속에 감추어 놓은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달한다. 작품은 비평가의 비평을 통해 숨어있는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다. 비평의 대상이 되지 못한 작품은 마치 한번 피었다가 금방 저물어버리는 꽃같이 사라진다. 비평의 대상이 된 작품만이 오래 피는 꽃이 되고 열매를 맺어 그 씨를 통해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비평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그저 하나의 의견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이나 문화 전반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한다. 비평가의 비평에는 문화예술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판단도 들어있다.<sup>2)</sup>

## 문학비평가의 힘

사회학자들만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문 분야의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가, 영화감독,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문학평론가도 사회에 대해 알 가왈부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문학평론가의 사회적 발언이 사회학자들의 발언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sup>3)</sup> 1970년대 백낙청, 김현, 김병익, 김우창, 유종호 등 문학평론가들은 「창비」, 「문지」, 「세계의 문학」 등의 계간지를 통해 문학비평을 발표했는데 그들이 쓴 글은 문학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비평을 함축하고 있었다.

문학평론가들은 문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학이 이루어지는 사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평론가들은 글이 쓰일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고 작품 해석에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키면서 교양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려고

---

2) 비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자끄 엘뤼(지음), 하태환(옮김), 『무의미의 제국-예술과 기술사회』(대장간, 2013), 253쪽을 참조했음.

3) 문학비평이 암암리에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진 어떤 것이 아니다. 정과리(2005: 273)에 따르면 “대의는, 혹은 전망은 여러 사람들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구성되어야 할 것이지, 이미 주어진 것은 아니다.” 문학비평가들이 문학과 더불어 ‘문학의 사회적 지평’을 논한다면 사회학자는 사회학과 더불어 ‘사회학의 문학적 지평’을 논의해야 한다. 그게 문학도 살고 사회학도 사는 길이다.

노력한다. 그런 문학비평가의 글쓰기 방식이 비평가들이 갖는 대중적 영향력을 설명해 준다.

비평가들은 개념어와 일상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객관적 분석과 주관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의 글을 씀으로써 자기가 쏙 빠진 객관성을 가장하는 사회학자들의 글쓰기보다 훨씬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작품으로서의 문학비평

흔히 비평가는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 비평하지만 스스로는 작품을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글에 대한 비평을 글로 쓰는 문학비평의 경우에는 비평과 창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인이면서 비평가를 겸하는 사람도 있고 소설 창작과 비평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나 소설을 쓰지 않고 비평 자체가 창작이 될 수도 있다. 정과리는 문학비평을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인 동시에 하나의 창작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쓴다. 그는 서평모임에서 “나는 문학을 하려고 문학비평가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쓰는 비평이 단지 작품에 대한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작품이 되도록 글을 쓴다는 말이다. 작품에 대한 비평이면서 동시에 작품이 되는 비평이 정과리가 추구하는 문학비평이다.

비평문이 하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사상만이 아니라 문체와 구성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정과리의 글들은 제목에서부터 흥미를 돋운다. 예를 들면 정과리의 저서 『문신공방 하나』(2005)에는 이런 제목의 글들이 나온다. “외로움과 더불어 사는 네 가지 방식”, “오래 씹어야 할 뚝은 얘기”, “문학 대법관의 좃대 있는 시 읽기”, “한국어로 사유하고 한국어로 쓴다는 것” 등등.

정과리는 『1980년대의 북극꽃들이 빨고등을 불어라』(2014)에서 오늘날 한국인이 겪고 있는 집합적 우울을 설명하는데, 일상 언어와 개념어가 적절하게 배합된 그의 문장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극단적으로 말해 우울증은 조증躁症이 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갑갑함 혹은 탈난 무기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69), “1990년대 이후 한국인이 가지게 된 ‘우울’이라는 감정은 (...) 지나친 ‘자신감’과 ‘자격만당資格滿堂감’이 그걸 받아줄 세상을 만나지 못해 몸부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70-71)

## 정과리의 비평 작품들

정과리는 불문학자이면서 한국문학 비평을 하다가 아예 국문과 교수가 되었다. 그에게 “문학은 모든 것을 유용성의 척도로 재고 획일화시키는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반성과 발견의 모든 ‘고통 하는 축제’로 함께 뛰노는 가장 섬세하고 활기찬 공간이다.”<sup>4)</sup>

‘정과리’에서 시작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이어진다. 정과리->김현->문학과지성->창작과비평->1970년대-1980년대->민주화운동->한국의 지성사와 지식인의 역사->오늘의 한국사회->분단과 세계화->오늘의 문학, 오늘의 학문->한국의 미래->우리가 오늘을 사는 방식에 대한 성찰...

정과리는 일찍이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조세희론”으로 입선하여 평론가로 입신했다. 2000년대 들어 그는 시, 소설, 평론이라는 세 분야에서 그동안 자신이 쓴 글을 모으고 분류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다.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뿔고둥을 불러라-내가 사랑한 시인들 두 번째』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1980년대에 『문학, 존재의 변증법』(문학과지성사, 1985), 『존재의 변증법 2』(청하, 1986), 『스밈과 짜임』(문학과지성사, 1988), 『문명의 배꼽』(문지, 1988) 등의 저서를 통해 활발한 비평 작업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1990년대에는 다소 소강상태로 들어가 『무덤 속의 마젤란』(문지, 1999)을 상재했을 뿐이다. 그의 해명에 따르면 그는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납빛 침묵’ 속으로 ‘침잠’했다. 그 시절을 그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일상은 낯설었고 상상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갇혀 있었으며, 생각은 집요한 강박관념으로 변해 있었고, 몸은 정확하게 집행하는 기계 같았다. 이 조건 반사적인 기계를 두고 나는 때때로 한탄하였으나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존재 증명이었다.”<sup>5)</sup> 그는 당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이렇게 그렸다. “역류의 첫 물길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금세 나는 나의 행적들이 모두 꼬리 잘린 도마뱀의 꼬를 한 채로 뿔뿔이 흩어지고 너절하게 흩어져 있는 광경에 놀라고 참혹히 무색했다.”<sup>6)</sup>

그런 침잠의 시기를 지나 그는 2005년 다시 책을 펴내기 시작했다. 1986년에서 2004년까지 쓴 이론적인 성향의 글이 모여 있는 『문학이라는 것의 욕망-존재의 변증법4』(2005)과 『문신공방 하나-현대 한국소설과 비평 그리고 문학판 읽기, 1988-2005』(2005)가 그것이다. 이 두 권의 책에 이어 그는 『네안데르탈인의 귀환-소설의 문법』

4) 정과리, 『문신공방 하나』, (역락, 2005), 205쪽.

5) 정과리, 윗글, 7쪽.

6) 정과리, 윗글, 9쪽.

(2008), 『네안데르탈인의 귀향-내가 사랑한 시인 처음』(2008), 『글숨의 광합성』(2009) 등을 차례로 펴냈다. 2014년에 펴낸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빨고둥을 불러라-내가 사랑한 시인들 두 번째』는 그의 가장 최근 저서이다. 이 책의 제목은 ‘야만인’이라는 제목의 랭보의 시에서 나온 것인데 사뮈엘 베케트는 이 시를 ‘권태1’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반복한 적이 있다.

아 깃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대양들의 비단자락과 북극꽃 위에 걸릴  
피가 똑똑 떨어지는 살점의 깃발

1980년대를 대표하는 비평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과리는 김현, 김병익, 김치수 등의 비평에 대한 글을 쓴 바 있고 1970년대 ‘창비’와 ‘문지’를 비롯한 문학 동인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편의 글을 쓴 바 있다. 그가 예고했듯이 소설과 시에 대한 비평집들에 이어 앞으로 문학비평에 대한 비평집 또는 한국문학비평의 역사를 다룬 책이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 문학의 사회적 기능

문학비평은 문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논의한다. 정과리에 따르면 “문학이란 게 늘 묻는 게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이다. 그런 문학 비평이 어떻게 **세상 전체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7)</sup>

나는 정과리의 이러한 주장이 사회학에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누가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 지배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억압은 없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곳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등을 묻고 답하려는 노력이다. 그렇다면 문학비평가와 사회학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깝다.

정과리는 그의 첫 번째 비평집 『문학, 존재의 변증법』 서문에서 문학이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문학은 삶의 조건을 바꾸어보려는 여러 노력들 중의 하나이다. 그 노력은 삶을 개념화하거나 삶의 극복 의지를 행동화하는 양태로 드러나지 않고, 그 양자를 존재의 모습으로써 체험화 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학은

7) 정과리, “한국비평의 현상학” 『문신공방 하나』(역락, 2005), 257-275쪽.

세계의 반영도, 세계에 대한 질문도 명료한 대답도 아니며, 세계의 움직임을 의미 있게 움직이게 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하는, 질문과 대답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다.”<sup>8)</sup>

그는 아예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학을 ‘생활사회학’이라고 명명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하였다. “생활사회학은 사회라는 덩어리가 억압적인 힘과 변혁적인 힘으로 뭉쳐져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억압의 단면에서 변혁의 표지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는 관점 혹은 의도를 뜻한다. 그것은 세상 전체가 자본의 논리에 침윤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염된 부위가 실은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sup>9)</sup>

정과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를 ‘미디어에 포박된 주관성의 사회’라고 본다. 1988년 이후 거의 25년의 한국 사회를 하나의 스펙터클, 즉 ‘덧없음 속에서 우발적으로 선택하는 신종 자유들’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산되는 주관성이 미디어의 그물에 포박되어 노예로 변질되는 사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라고 정의한다면 무엇 보다는도 구출해야 하는 것은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 자신을 세계의 구성적 기제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운동을 성찰하는 주관성의 존재론이다. 그것만이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껴안는 성숙한 태도이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자기도취로 빠져들게 하지 않고 **세계와 이성적으로 대결하는 건강한 주관성**으로 성장케 하는 방법이다.”(2014: 73)

정과리는 “우리가 아픔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아픔을 가져오게 한 것들을 은폐하거나 신비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성복이 언젠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밀즈가 말하는 ‘사회학적 상상력’과 유사한 발상이다. 개인적 고통이 사회적 문제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상상해보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이기 때문이다.

“집단은 개인들의 총합이 아니다. 집단은 개인들의 연락망이다. (...) 문제는 개인들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2014: 37, 35) 정과리의 이러한 생각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에서 내가 주장한 ‘건강한 개인주의’와 맥을 함께 한다. 미디어의 상업적 그물망을 벗어나 스스로를 이성적 주체로 세워 그 사회를 비판하고 저항하고 초월하면서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주체적 삶의 모색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실천이다.<sup>10)</sup> 그런 실천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8) 정과리,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1985), iv쪽.

9) 정과리, 『문신공방 하나』(역락, 2005), 274쪽.

10)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생각의나무, 2007) 볼 것. 특히 530-532쪽의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사회운동”과 540-542쪽의 “문학과 예술의 역할”을 참조할 것.

## 1980년대의 지적 유산

1980년대는 이미 아련한 과거가 되어버린 듯하다. 그 시절의 뜨거운 문제의식은 수증기처럼 증발한지 오래다. 1990년대 이후 “문학이 문화로 퍼져나가고, 문화가 한류로 이동하고, 인문학이 스티브 잡스식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창의성’으로 변개(變改)하고,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분리로 잘 팔리는 대중문학이 문학적 가치를 독식하는 게 자연사(自然事)가 되어 문학이 자연사(自然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게 정과리의 진단이다.(2014: 53)

민주화 이후 문화의 시대가 몰려왔으나 그 문화는 사회적 지평이 사라진 대중의 문화요 소비의 문화였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카피와 시가 근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정치판, 행사장, 공익광고, 아침 마당 등에 시와 시인이 시 쓰는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다.”(2014: 57-58) 그러나 시는 현실과 타협할 때 죽음을 맞이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시는 점점 더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급기야는 “무덤 밑을 포복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과리는 1980년대의 시인들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80년대의 성과를 송두리째 내던질 것이 아니라 건져야 할 것은 구출해내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사회운동 세력은 “부당하게 연장된 독재 정권이라는 악과 싸우기 위해” 선을 자처했고 스스로의 편협성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들은 민족과 계급이라는 이념의 잣대로 현실을 재단하는 성급함을 보였지만 사적 이익을 넘어 공적이고 사회적인 지평에서 삶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민족과 계급이라는 “집단의 가면 뒤에 숨은 개인들의 이익”이 맨 얼굴을 드러내면서 공적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힘을 잃게 되었다.

1970년대 ‘문지’와 ‘창비’의 시대에 수련기를 거친 정과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해방 50년의 한국시가 중요하게 이룬 성과 중의 하나는 시를 현실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이상한 태도를 교정했다는 것이다.”(2005: 142) 시 속에 사회적 지평이 들어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한국시에서 점점 사회적 지평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과리는 2010년대 오늘날의 한국시에서 사회적 지평의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도 진정한 시인은 현실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현실의 변화와 초월을 지향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시에는 현실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지평이 사라졌다. 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잃어가고 있는 사회적 지평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정과리가 볼 때 “사회적 지평은 말 그대로 사회적 지평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서만 열린다. 즉 ‘집단 내부의 인간들의 상호관계와 집단들 간의 관계’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그 가능성의 측량 위에서만. 사회와의 갈등을 다룬다 해도 사회를 넘어설 수 없는 벽으로 간주하고 그 벽을 타 넘으려는 담쟁이에 초점을 맞추는 한 사회적 지평은 열리지 않는다.”(2014: 34-35) 개인들은 모래알처럼 파편화되었고 각자도생의 길 위에서 그들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고한 벽을 무너뜨릴 생각은 포기하고 담쟁이처럼 벽을 타고 넘는 기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벽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회적 지평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그런 시를 쓰는 시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소통을 위한 글쓰기

대중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분노와 회한, 기쁨과 슬픔, 수치심과 모멸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바른 말과 옳은 말도 대중을 움직일 수 없다. 대중들은 대중매체를 떠도는 감각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말들에 감염되어 있다. 딱딱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대중에게 사유와 성찰을 유발하려면 글을 어떻게 써야할 것인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하는 비평가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이탈리아의 지식인 그람시는 크로체의 글이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결을 그의 문체에서 찾았다. 그람시는 이렇게 썼다. “그의 가장 뛰어난 자질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일련의 짧고 비현학적인 저술들로 전파하는 능력에 있었고, 일반 대중은 그의 글을 ‘양식’이자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sup>11)</sup>

살아있는 앎은 이해와 느낌의 결합체이다. 느낌은 문체에서 온다. 지난날 백낙청, 김현, 김윤식, 김병익, 김우창, 유종호 등 문학 비평가들이 여느 사회학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한 이유도 그들이 글을 쓰는 방식에 있다. 비평가들이 쓰는 글에는 느낌과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글을 읽다보면 심미적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회평론을 하는 사회학자들은 문학평론가들에게 글 쓰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사회학자는 보통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민덩어리’를 이해하는데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학 이야기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sup>12)</sup>

이런 문제에 대해 정과리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제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쓰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기로 하자. 그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쉬운 걸 골라서 제공한단 말인가? 그건 그냥 서민들에게 된장찌개나 먹으라고 권하는 거나 마

11) 노명우, 『세상물정의 사회학』(사계절, 2013), 32쪽에서 재인용.

12) 정수복, “사회학의 위기에 응답하는 사회학” 『문화와 사회』 16권(2014년 봄호), 275-324쪽을 볼 것.

찬가지다. 내가 직접 끓여먹는 된장찌개가 나쁜 음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익숙한 습관에 안주하게끔 억박지르는 그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문학이 그 가능성의 확대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들 삶의 복잡성 속으로 들어가 그 복잡성이 그들 생의 풍요에 연결되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2014: 43-44)

맞는 말이다.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계속 불러대는 일은 힘든 사람을 위로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글을 쉽게 쓰라는 말은 상투적인 이야기를 상투적인 방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잡한 내용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써야한다는 말이다.

모든 비평집이 다 그렇지만 정과리의 비평집도 이미 지적 수준이 높고 문학적 교양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이다. 그것도 시 읽기에 있어서 일정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아산서평모임에 참석한 철학자, 역사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들도 나름 관심을 기울여 정과리의 책을 읽어보았지만 모두들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문학비평이 작품이라면, 그리고 작품은 독자들에게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면 정과리의 비평집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문학 엘리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정과리가 자신의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서평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다. 그렇다면 글의 난해성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글은 독자를 상정한다. 문학비평은 독자들에게 작품의 감추어진 의미 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시를 깊이 있게 읽는 독자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비평가는 어떤 글쓰기를 해야 할 것인가? 이는 단지 비평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다. 모든 분야의 학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다. 전문적 학술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다수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 외국 이론의 올바른 수용 문제

사회학 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외국 이론가들의 이름과 생소한 학술적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적 삶에 대해 논의하는 담론들이 우리와 다른 맥락에서 만들어진 생소한 개념들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로 설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헛돌고 우리의 말은 걸돈다. 한국의 사회학자들은 외국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요약하고 거기에 한국사회의

경험적 자료를 덧붙이고 자신의 해석을 약간 붙이는 방식으로 논문을 쓰고 있다. 그런 학술논문 쓰기는 거부할 수 없는 관행이 되었다. 문학평론에도 점차 외국 이론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인들과 소설가들의 작품에 대해 비평을 하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외국 이론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과리는 “타자의 말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되뇌는 앵무새주의의 경향이 한국 지식계의 풍토를 천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sup>13)</sup> 그는 문학 비평가들의 어설픈 외국 이론 수용을 경계한다. 그가 볼 때 “서양 철학자와 정신분석학자의 이론을 화려한 꽃술처럼 달고 탈주脫走의 이데올로기는 정말 화려하게 1990년대를 장식했다. 정작 원용된 서양의 이론가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데도 말이다.”(2005: 269) 한국의 비평가들이 “서양의 이론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 하더라도, 섬세하게 원용되어야 한다. (...) 섬세하게 원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해체), 이곳의 실정에 맞게 변용해야 한다(재구성)는 뜻이다.”(2005: 264-265)

정과리의 이러한 주장은 문학 비평가만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의 사회학자들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외국의 이론들로 포장하는 작업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에 더욱 천착하며 우리의 사회적 삶을 설명해주는 우리의 언어를 창조해야 한다.

### 정과리가 사랑한 시인들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비명을 여전히 듣고 있는 괴이한 자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 비명의 시는 쓰이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도 우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듣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비명이 ‘언제나 들리는 것 같다’고 느낀다. 그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비명을 환청으로 듣는 자이다.”(2014: 190-191)

시를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무의미의 향사를 뒤집어쓰며, 그것들을 고열로 달구어진 의미 탐색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가는 도중에서 그 운동을 다스릴 수 없는 욕망의 분출로 끌고 가는 대신, 최고도의 균형을 갖춘 형태로 결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2014: 224) 시인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이다. 그리고 시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이다. 자기를 되돌아보면

---

13) 정과리, “벌거숭이 지식인- 한국 지식인의 위상: 어제와 오늘”, 『문학과 사회』 제7권 4호 (1994년 겨울호), 1406-1434쪽. 인용은 1409쪽.

서 자기를 변용시키고 확장시키는 자이다. 시를 읽는 일은 시인과 함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문학비평은 비평 대상의 선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비평 대상의 선정 자체가 비평행위이다. 정과리가 사랑한 시인들을 다루는 두 번째 비평집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뽕고동을 불러라』에는 이성복, 황지우, 김혜순, 최승자, 고정희, 김승희, 황인숙, 김정란, 김정환, 백무산, 고희열, 최두석, 김영승, 송재학, 원구식, 정일근 등 1980년대를 대표하는 여러 시인들이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1980년대 시를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부제가 지시하듯이 정과리가 ‘사랑한 시인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정과리는 “그와 함께 문학의 길을 동행했던 친구들의 텍스트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 의미를 발굴해 내는 즐거움을 누렸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기왕의 모든 문학을 그렇게 발견술적으로 읽는 방식을 떠듬떠듬 배워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2005: 402)

이 책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중심적인 시인은 이성복, 황지우, 김혜순 등이다. ‘문지’학파 2세대를 대표하는 비평가 정과리가 문지의 대표적 시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시를 비평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 다시 공감의 비평으로

‘문지학파’ 1세대를 대표하는 김현은 서울대 불문과에서 가르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소설가 이인성, 시인 이성복, 평론가 정과리가 모두 그의 제자들이고 시인 황지우와 평론가 권오룡, 홍정선 등이 모두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문지 2세대 평론가들 가운데 정과리는 김현, 김병익, 김치수, 김주연이라는 4K를 비롯하여 문지를 넘어서 백낙청, 김우창, 유종호 등 1970년대의 대표적 비평가들의 업적을 계승하면서 1980년대 이후 한국 문학비평계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다.

정과리는 자신의 비평 작업이 1970년대 비평가들의 작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비평 작업을 김현과 김치수를 비롯한 문지학파의 비평가들이 내세웠던 ‘공감의 비평’을 계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갖는 의미를 매우 겸손하게 낮춘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문학평론의 전성기가 끝나갈 무렵에 ‘막차를 탄 비평가’로서 자신의 평론은 “오랜 스승들의 위대한 교감적 행동들에 미루어 보면, 세간의 언어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sup>14)</sup>

14) 정과리, 『문신공방 하나』(역락, 2005), 12쪽.

그러나 그의 겸손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늘 분명한 어조로 표현한다. 이를테면 그는 2000년대의 비평에 대해 이렇게 썼다. “오늘의 한국 비평은 격렬하지만 사소하다. (...) 한국의 비평은 일종의 트리비얼리즘에 빠져 있는 듯하다. 지금 쟁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가꿈 놓고 혼란스럽고 사소하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지나치다.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도, 때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한 번 목소리를 높이면 여간 악착스럽지가 않다. 타인을 비판하거나 주장을 내세우거나 공히 그렇다. 예전 같으면 무의미하다고 판단된 비판이나 주장은 무시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러면 비판자가 비판당하는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즉각 돌출한다.”(2005: 255-257) 한국의 문학 비평은 “한국 문학의 공간적 지형과 시간적 맥락 속에 텍스트를 위치시키면서, 텍스트들 간의, 그리고 작가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해명하는 일에 매우 소홀하다.”(2005: 265)

정과리가 느끼는 전 세대 비평가들로부터 “독립을 하긴 했으나 영원히 그이에게 못미치고 말리라는 예감”은 의례적 겸손의 표현이다.<sup>15)</sup> 그는 오늘날 문학비평의 그릇된 흐름을 바로잡고자 한다. 일단 이렇게 상황을 진단한다. “한국인의 의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1970년대 비평의 최고 성과라고 내가 생각하며 또한 나 자신이 기꺼이 따르려 했던 ‘공감의 비평’은 거의 멸실되고 아이디어와 이론으로 작품을 포장하는 조념 造念비평이 전국적인 유행이 되었다.”<sup>16)</sup>

그는 ‘조념비평’에서 벗어나 다시 ‘공감의 비평’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문학의 사회적 지평이 사라지고 작품을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하는 조념비평이 유행하는 문학비평계의 현실 속에서 정과리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작품 속으로 진입하고 작품을 더욱 깊이 느끼기 위해 이론을 쓰다듬는” 비평의 자세, 다시 말해서 ‘공감의 비평’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키려고 다시금 비평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그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비평을 잘 해나가기 위해 “에너지가 잘 주입되도록 무병을 빌고, 그 운행이 순행이도록” 자신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나태와 안정을 배격한다.<sup>17)</sup> 문학평론에서 영감을 얻는 사회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왕성한 비평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5) 정과리, 『문신공방 하나-현대 한국소설과 비평 그리고 문학판 읽기, 1988-2005』(역락, 2005), 213쪽.

16) 정과리, 『네안데르탈인의 귀환-소설의 문법』(2008), 10쪽.

17) 정과리 윗글, 13쪽.

## 참고문헌

김현, 1991-1993, 『김현문학전집』, 문학과지성사.

노명우, 2013, 『세상물정의 사회학』, 사계절.

엘릴, 자끄(지음), 하태환(옮김), 2013, 『무의미의 제국-예술과 기술사회』, 대장간.

정과리, 2009, 『글숨의 광합성: 한국 소설의 내밀한 충동들』, 문학과지성사.

-----, 2008, 『네안데르탈인의 귀환-소설의 문법』, 문학과지성사.

-----, 2005, 『문신공방 하나-현대 한국소설과 비평 그리고 문학판 읽기, 1988-2005』, 역락.

-----, 2005, 『문학이라는 것의 욕망-존재의 변증법 4』, 역락.

-----, 1999, 『무덤 속의 마젤란』, 문학과지성사.

-----, 1994, “벌거숭이 지식인- 한국 지식인의 위상: 어제와 오늘”. 『문학과 사회』 제7권 4호(1994년 겨울호): 1406-1434쪽.

-----, 1988, 『문명의 배꼽』, 문학과지성사.

-----, 1988, 『스밈과 짜임』, 문학과지성사.

-----, 1986, 『존재의 변증법 2』, 청하.

-----, 1985,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정수복, “사회학의 위기에 응답하는 사회학”, 『문화와 사회』 16권(2014년 봄호), 275-324쪽.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나무.